보도자료	사법정책연구원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5. 12. 19.(금)	담당 부서	연구기획실
	담당자	공보판사 윤동현 (☏ 031-920-3520)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12월 17일(수) 「정신적 장애와 사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 2025. 12. 17.(수) 13:30부터 18:00까지 JW메리어트 서울 3층에서 「정신적 장애와 사법」이라는 주제로 첨부 프로그램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 **의의**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 규정하면서, 정신적 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구분함

● 사회제도를 이해하거나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원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도 이러한 의무를 표명한 것임

● 사법부의 경우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할 것임. 형사절차에서 정신적 장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비장애인과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지원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제도 실무를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 **제1세션 주제:「정신장애와 법의 역할」**

● 사회: 김유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 발표: 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대 로마법부터 정신적 장애인은 의사능력을 제한하는 등 특별하게 취급됨. 20세기 이후 강제입원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됨
- 정신장애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강제입원, 강제치료, 강제이송, 격리·강박으로 나누어 검토
- 강제입원에 대한 책임을 사적 영역에 맡기는 현행 제도에 대한 우려 및 사법입원의 도입 제안

● 토론

- ① 강우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성인의 행동에 대하여 가족에게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시함. 보호의무를 부과한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이를 보완할 다른 조치(손실보상, 공적보험제도)를 두지 않은 법적 흠결상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 ② 이해우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비자의입원제도를 '수용'의 관점이 아니라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함. 정신질환은 의학적 질환이며 특히 정신질환의 급성기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수적임. 의사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 ③ 이정하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현재 비자의입원제도가 정신장애인을 객체이자 물건으로 바라보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비자의입원제도의 책임을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나아가 응급병상이 부족하고, 현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환경이 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치료를 맡고 있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제2세션 주제:「발달장애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 사회: 이은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이혜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형사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지위 검토
- 수사단계에서의 장애의 확인, 보조인·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지정 관련 개선방안을 제안
- 공판단계에서의 소송능력 판단에 있어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양형조사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
- 선고단계에서 치료감호, 치료명령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

● 토론

- ① 황윤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발달장애인 판단 기준·방법에 관하여 장애의 확인을 위한 일본의 '기소전 감정' 제도, 수사단계에서의 간이감정 제도의 취지에 공감. 다만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를 피고인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피고인인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② 박유영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직접 담당한 국선변호사례를 생생히 전달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이들을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 나아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 소년보호절차와 유사한 새로운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피력
- ③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장애인 개개별로 정말 다양한 양태의 장애가 발현된다고 언급.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이를 판단하는 검사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기소 전 감정' 제도의 실무상 운영에 우려를 표함.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

▣ **제3세션 주제발표:「비자의입원제도의 실질과 개선방안」**

● 사회: 이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장

● 발표: 소민아 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장

- 비자의입원과 비자의 치료 관련 주요 국제 규약 및 원칙 설명
- 구 정신보건법의 한계 및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 설명
-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비자의입원 주요 통계 안내
- 비자의입원제도 개선방안 관련 외래치료지원제도, 응급입원에 있어 이송문제의 개선 및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주장

● 토론

- ① 정순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현행 인신보호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 다만 연간 3만 건에 달하는 비자의입원 전부를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하기에는 법원의 사건부담이 크고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②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으나 치료감호 선고가 여의치 않은 경우 정신과 병원에의 입원을 치료감호에 준하여 선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법입원 제도를 점진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
- ③ 권준수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법원과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된 직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인권을 보호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한 치료를 하는 이중적인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준사법입원제(정신건강심판원)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본 행사는 현장 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유튜브(www.youtube.com)「사법정책연구원」채널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함

● 행사 종료 후에도 동영상 게시, 공유

● 발표문, 토론문 등 관련 학술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하고,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jpri.scourt.go.kr) > 발간자료 > 학술 행사 자료' 항목에서 열람 가능

▣ **전망**

- 본 학술대회는 실무가와 학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제도를 성찰하고,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됨
-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 사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설계 및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임. 끝.

프로그램

전체사회: **윤동현** | 사법정책연구원 공보연구위원 / 판사

13:30-14:00	**개회식**
개 회 사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축 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환 영 사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
14:00-14:10	장내정리 및 기념촬영
14:10-15:20	**[제1세션] 정신장애와 법의 역할**
사 회	**김유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발 표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강우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해우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정하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15:20-15:30	휴식
15:30-16:40	**[제2세션] 발달장애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 회	**이은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이혜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부장판사
토 론	**황윤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유영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6:40-16:50	휴식
16:50-18:00	**[제3세션] 비자의입원제도의 실질과 개선방안**
사 회	**이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장
발 표	**소민아**	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장
토 론	**정순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준수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